

7. 파나마의 정치·경제 동향

가. 일반개황

일 반	위치 : 중미와 남미 연결지점 면적 : 76천 km ² 한반도의 1/3) 기후 : 열대 인 구 : 3.5백만 명(2009) 수 도 : Panama City(84만 명) 반 민 : 족 : 메스티조(70%), 인디오 혼혈(14%), 백인(10%), 기타(6%) 언 어 : 스페인어 종 교 : 가톨릭(85%), 개신교(15%)
정 치	독립 일 : 1903. 11. 3(콜롬비아) 정 부 형 태 : 대통령중심제(공화제) 국 가 원 수 : Ricardo Martinelli 대통령 의 회 : 단원제(71석) 주 요 정 당 : 민주변화당(CD), 파나마당(PP), 자유공화민족운동(Molirena) 국제기구가입 : UN, IMF, IBRD, IDB, IFC, ICAO, OAS, ILO, WTO 등
경 제	G D P : 246억 달러(2009) 1인당 GDP : 7,029달러(2009) 화 폐 단 위 : Balboa(B) 회 계 연 도 : 1. 1 ~ 12. 31 산업구조(2009) : 농업 6.3%, 제조업 18.2%, 서비스업 75.5% 주 요 수 출 품 : 바나나, 새우, 설탕, 커피 주 요 수 입 품 : 자본재, 식료품, 석유화학제품 주요부존자원 : 동, 몰리브덴 등 광물자원, 농수산자원 경 제 적 강 점 : 지리적 교통요지, 역외금융시장 발달, CBI 수혜국 경 제 적 약 점 : 높은 대외의존도

나. 약사

- 1501년 : 스페인인 Rodrigo Galvan De Bastidia 파나마 발견
- 1509년 : 스페인인 Vasco Nuñez De Balboa 태평양 발견
- 1519년 : 스페인인 Pedro Arias De Alvia 파나마 건설
- 1821년 11월 28일 :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콜롬비아 연방국의 일원으로 가담
- 1903년 11월 3일 : 미국 지원하에 콜롬비아로부터 분리 독립, 독립 직후 미국과 파나마운하 건설과 운하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미국에 영구 양도하는 헤이-부나우-바리야(Hay-Bunau-Varilla) 조약 체결
- 1968년 : 또리호스(Omar Torrijos Herrera) 장군, 군사혁명으로 실권 장악
- 1977년 : 또리호스-카터 조약 체결
- 1981년 : 또리호스 비행기 사고로 사망, 노리에가(Manuel Antonio Noriega) 장군이 군부 실권자로 등장
- 1989년 12월 20일 : 미군 파나마 침공, 노리에가 체포
- 1999년 : 미레야 모스코소(Mireya Moscoso) 대통령 취임
- 1999년 12월 31일 : 파나마운하 인수 및 미군 철수 완료

- 2004년 9월 : 마르틴 토리호스(Martín Torrijos) 대통령 취임
- 2009년 9월 : 리카르도 마르티넬리(Ricardo Martinelli) 대통령 취임

다. 경제동향

(1) 국내경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제성장률	8.5	12.1	10.7	2.4	4.4
재정수지/GDP	1.2	4.8	2.5	-0.9	-3.1
소비자물가상승률	2.2	6.4	6.8	1.9	4.5

□ 양호한 경제성장률 시현

- 2006년 이후 파나마 경제는 운하 수입 증가 및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8%~12%대의 중남미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08년에도 운하확장공사에 따른 건설업 호황, 고용 창출, 내수 수요 증대 등으로 10.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운하 수입 감소, 해외근로자 송금 및 FDI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 착공 등에 힘입어 2%대의 경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2010년에는 운하 개발 관련 인프라 투자 및 FDI 유입세 회복으로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상승 압력 완화

- 2007년에는 또리호스(Torrijos) 정부의 휘발유 및 디젤 수입관세 감축 등 물가상승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유 및 식료품의 국제가격의 상승으로 지난 28년간 중 가장 높은 6.4%를 기록하였고, 2008년에도 원유 및 식료품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8%로 상승하였음.
-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원자재 및 식료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물가상승률이 1.9%로 크게 낮아졌음. 금년에는 원자재 및 농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 전환

- 파나마는 전임 또리호스 정부 집권기간(2004~08년)동안 재정개혁 정책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대규모 적자를 보여왔던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최근 경제성장세 둔화와 더불어 다시 적자로 반전됨.
- 2008년에는 운하 확장, 빈민층과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어 재정수입은 감소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폭은 전년대비 축소된 2.5%대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도 공공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확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수지가 4년 만에 적자로 반전되었음. 금년에도 3월에 부가가치세(ITBMS) 세율을 5%에서

7%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세수 증가가 기대되나, 경기부양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 국제경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 상 수 지	-448	-1,407	-2,677	-52	-941
경상수지/GDP	-2.6	-7.2	-11.4	-0.2	-3.5
상 품 수 지	-1,715	-3,190	-4,546	-2,026	-3,314
수 출	8,475	9,334	10,323	10,904	13,764
수 입	10,190	12,524	14,869	12,931	17,078
외 환 보 유 액	1,335	1,935	2,423	3,028	2,803
총 외 채 잔 액	9,989	9,862	11,253	12,733	14,021
외 채 / G D P	58.3	50.6	48.0	51.8	52.7
D. S. R.	55.4	11.9	21.4	10.9	11.3

□ 경상수지 적자규모 재차 확대

- 2005~06년에는 남미 지역 경제 회복에 따른 교역 증대와 전반적인 세계 경기 호전에 힘입은 상품수지 적자폭 축소 및 서비스수지 흑자폭 증가로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각각 6.6%와 2.6%로 2년 연속 감소함.
- 2007~08년에는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로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각각 32억 달러와 4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이 7.2%와 11.4%로 크게 확대됨.

- 2009년에는 수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수입이 대폭 감소(전년 대비 20억 달러 감소한 129억 달러)함에 따라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대폭 개선되었음. 금년 들어서는 지난해 지연되었던 인프라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이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폭이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증가세

-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도 최고 수준인 3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도 약 3개월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임.

□ 외채규모 과중

- 파나마의 2009년 말 기준 총 외채규모는 127억 달러로서 GDP의 36.9%에 달하는 등 여전히 외채부담이 과중한 편이며, 향후 운하 확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외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동국 정부가 세계개혁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경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대외지급능력이 단기간에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라. 정치·사회동향

□ 2009년 7월 마르띠넬리 정부 출범

- 2009년 5월 대선에서 야당 연합세력인 ‘변화를 위한 연합’(Allianza por el Cambio)의 대선후보 리카르도 마르띠넬리(Ricardo Martinelli)가 승리하였으며, 함께 치뤄진 총선에서 연합세력이 71석 중 41석을 차지하며 의회 다수당의 위치를 확보함.
- 마르띠넬리는 파나마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슈퍼 99’의 소유주이며, 파나마의 가장 성공한 기업인 중 한 명으로 평가됨. 마르띠넬리 정부는 출범 직후 주요 대선공약이었던 부패 척결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중임.

□ 사회안정성 비교적 양호

- 빈부격차, 높은 실업률, 부정부패 등의 사회문제가 존재하나,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반정부 단체의 활동도 없어 내란 발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

□ 미국과의 FTA 발효가 최우선 외교 과제

- 파나마는 미국과의 FTA 발효가 현재 최우선 외교과제임. 2006년 12월 미국과의 FTA가 체결되었으나, 현재 미국 의회내의 비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편 파나마 정부는 칠레, 싱가포르(2006년), 온두라스(2007년), 과테말라(2008년)와도 FTA를 체결하였고, 금년 5월에는 중미-EU 제협정에도 정회원국으로 참여함.

마.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2010년 주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부여

— Fitch는 금년 3월 조세개혁 등 파나마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파나마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하였고, S&P도 금년 5월 거시경제 및 정치 안정, 재정수지의 개선을 이유로 파나마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인 BBB-로 상향 조정함.

— Moody's는 2010년 2월 국가신용등급 평가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조정하며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금년 6월 재정 및 외채 관련 지표의 개선과 파나마운하 건설 관련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이유로 파나마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인 Baa3로 상향 조정하였음.

- OECD : 3등급('08. 6) → 3등급('09. 7)
- Moody's : Ba1('02. 11) → Ba1 ('10. 6)
- S&P : BB('01. 11) → BB+('08. 2) → BBB-('10. 5)
- Fitch : BB+('98. 9) → BBB-('10. 3)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 : 최고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 최고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인수가능

□ 국제신인도는 비교적 양호

- 1980년대 중반 리스케줄링을 경험한 파나마는 1987년 시민 폭동 등 일련의 정치·사회 불안으로 외채 상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정치·사회 안정 및 개혁 정책 추진으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 지원이 재개되었으며, 1990년에는 파리클럽과 공적채무 재조정에도 합의하였음.
- 1996년 7월에는 38억 달러 규모의 상업채무 연체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브래디 본드를 발행하는 등 동국 정부의 외채부담 완화 노력으로 파나마의 대외채무는 거의 모두 재조정되었으며, 이후 외채 상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
- 채권기관과의 관계 정상화 이후 글로벌 본드 발행을 통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임.

바. 향후 전망

- 파나마 경제는 2004년 이후 주 교역국인 미국의 경제호조세 및 세계 경기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 파나마 운하 수입 증대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2009년에도 미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및 투자 축소, 내수 경기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2.4%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금년에도 4%대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9월 야당 연합세력(Alliance for the Change)의 마르띠넬리 정부가 출범하였으며, 부패척결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V.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 정치·경제 동향 및 투자환경

- 공공부채와 총외채 규모가 다소 과중한 편이나, 최근 S&P가 파나마의 국가신용도등급을 투자적격등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대외 신인도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